

#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의 연구논문유형과 분석조사

권혜정, 황성수<sup>1)</sup>

동남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신구대학교 물리치료과<sup>1)</sup>

## The Analysis Study and Types of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Hei-jeoung Kwon, Seong-soo Hwang<sup>1)</sup>

Dept. of Physical Therapy, Dongnam Health College

Dept. of Physical Therapy, Shingu College<sup>1)</sup>

**Key Words:**  
Study,  
Manual  
Physical  
Therapy,  
KAOMPT

### 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and to give information about the type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research by KAOMPT Journal from 1995 (Volume 1) to 2011 (Volume 17). The number of research paper were total 212 studies. **Method:** The studies were analysed with 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was as follow; **Results & Conclusion:** 1. The studies was analysed 6 study field; manual therapy for disease field (130 studies), the therapeutic (16 studies), the effects of manual therapy education method, learning model (7 studies), medical insurance, history, politics of manual therapy (3 studies), and others (19 studies). 2. In the manual therapy of disease field, there were 4 groups of disease; bone disease (43 studies), soft tissue and muscles disease (57 studies), nerve disease(24 studies), and the others (6 studies). The main disease were low back pain, stroke, HIVD. 3. In th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ield, there were only 5 studies during from 1995 to 2000, but the studies from 2001 to 2011 were more increased 21 studies. 4. In the effects of manual therapy education method, learning model, there were very few studies (7 studies), so it will be needed more studies in this field. 5. In the other fields such as more political issue, history, medical insurance for the manual therapy there were few studies, so it will be needed more advanced studies in this field.

### I. 서론

한국 정형물리치료의 시작은 1990년 1월경에 Cyriax가 근무하고 있는 Saint Thomas Hospital(영국, 런던)에서 구희서(안산대학교) 교수가 Lumbar course(3일간)를 연수하고 Cyriax 제자가 운영하는 개업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한 뒤에, 1990년 여름방학에 국내 전국물리치료과 교수연수에서 요추부 코스(lumbar course)를 소개강의를 하였다. 이에 참석한 전국물리치료과 교수들이 정형물리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미국 Quinnipic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Russell M. Woodman(미국의 최

초의 Cyriax 제자 국제강사)을 초청하여 1991년 1월 16~21일(6일간) 기간 중에 국제 정형물리치료세미나 1차 코스(42명 참석)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이후 Russell M. Woodman과 함께 그의 제자 Tom P. Hobin과 Steve Bassett 일행을 초청하여, 1992년 1월 6~11일(6일간), 국제정형물리치료세미나 2차 코스(50명 참석)와 1993년 1월 4~9일(6일간) 국제정형물리치료세미나 3차 코스를(45명 참석)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하였다(박지환, 2000). 또한 1992년 2월 22일 강동성심병원에서 박지환(대전보건대학교)교수가 대한 정형물리치료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1992년~1993년까지 세미나코스를 정진우(제1대 명예회장) 실장이 운영주관하였다. 이후 1993년에 세미나 3차 코스를 모두 끝마친 뒤에는 정식으로 1994년 10월 22일

교신저자: 권혜정(동남보건대학교, hjss@dongnam.ac.kr)  
논문접수일: 2012.08.13, 논문수정일: 2012.10.23,  
개재확정일: 2012.10.30

에 유성 프린세스 호텔에서 제1회 대한 정형물리치료 학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이때 제2대 박흥기(김천대학교)교수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으며, 대한정형물리치료 학회지(창간호. 국제표준연속간행물 ISSN 등록 1226-3680, 교육부 학술 진흥재단등록)로서 1995년 11월(제11권 1호)로 출간되었다(박지환, 2000). 현재 8대 김명준(경동대학교) 회장이 재임하고 있으며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는 2011년 12월(제17권 2호)을 발간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의 연구논문 유형과 분석조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먼저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 학회지와 관련된 발전사항 즉,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수과정 및 정형전문 물리치료사의 회원관계, 학회지의 명칭변경과정, 정형도수물리치료의 다양한 기법종류,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에 관련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연계된 유사한 학회지 등의 발전과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정형도수물리치료의 이수과정과 정형전문물리치료사의 회원관계를 살펴보면 1991년도 이후 다양한 국제세미나 및 국내학술대회, 학회자체도서출간 등의 학술활동과 교육활동이 확대 실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이수과정인 경우, 1996년 3월 4일 서울한양대학병원에서 정형물리치료 기본과정(A코스: 정형도수치료개요와 해부생리)을 시작하여(박지환, 2000), 현재 전국 서울 외 19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기본 패키지 과정(package course, 20개 강좌)을 주강사 27명이 438시간(44주)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급과정(advance course, 8개 강좌)을 주강사 8명이 각 강좌별로 2주(20시간) 총 16주(16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형도수물리치료에 연관된 대체물리치료를 도입하여 기본 패키지 과정과 고급 과정을 이수한 회원만이 연수할 수 있는 응용 과정(application course, 2개 강좌)를 주 강사 2명이 각 강좌별로 2주(20시간) 총 4주(40시간)를 실시하고 있다(<http://www.kaomt.or.kr>,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홈페이지).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의 정형전문물리치료사 회원과 일반회원을 살펴보면, 2000년 9월에 제1회 정형전문도수치료사 자격시험(32명 합격 91.4%)을 시작하여 현재 2011년에는 제10회 정형전문물리치료사 자격시험 합격(92명, 합격 98%)으로 총 324명이 합격하였고,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본 학회의 1개 이상 이수과정을 이수한 회원수는 13,729명(2012년 5월기준)이고, 준회원은 3,838명, 정회원 629명, 영구회원 104명이다(2012년 6월 기준).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의 명칭을 살펴보면, 처

음에는 1995년 11월(제1권 1호)에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The Journal Kore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Physical Therapy)” 명칭이었다. 그 후 2001년 6월(제7권 1호)부터는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Therapy)”의 영어명칭만 바꾸었고, 2003년 12월(제9권 2호)에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Therapy)”의 한글명칭만 바뀌었다. 현재는 2010년 12월(제16권 2호)부터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Physical Therapy)”의 영어명칭과 한글명칭이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다. 본 학회지는 1995년 11월(제1권 1호 창간호)에 최초로 출간되어 1999년 11월(제5권 1호)까지 년 1회 발행하여 5권이었으며 2000년 6월(제6권 1호)부터 년 2회로 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2011년 12월(제17권 2호)까지 24권으로 총 29권이다(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1995-2011).

정형도수물리치료의 기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처음에 Russell M. Woodman은 한국에서 처음에 James Cyriax 접근법과 John Mennell 접근법을 주로 소개하였으나, 그 이후 정골의학적(Osteopathic) 접근법, Geoffrey Maitland 접근법, Freddy Kaltenborn 접근법, Ola Grimsby 접근법, Robin Mckenzie 접근법, Brian Mulligan 접근법, 근에너지기법(Muscle Energy Technique, MET), 근막이완술(Myofascial Release Therapy, MFR)접근법, 관절가동술의 Edmond Approach, Cranial Sacral Therapy와 Visceral Manipulation 접근법, Magee Stabilization 접근법, Clinical Reasoning 기법, Mark Jones의 Examination과 Management 접근법등의 다양한 기법을 연수하게 되었으며(김호봉 등, 2005, <http://www.kaomt.or.kr>), 유사한 정형도수대체물리치료의 개념으로, 기능적 테이핑(functional taping) 접근법과 임상 신경역동기법(clinical neurodynamic technique) 접근법, 슬링운동(sling exercise) 접근법 등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된 물리치료 관련된 학회를 살펴보면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칼텐보른 예비엔스학회, 대한관절운동도수치료학회, MFR학회, 동서물리치료학회, 대한척추교정학회, 스포츠물리치료학회 등으로 총 7개이었으나(박지환, 2000), 현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된 학회를 살펴보면 중별학회명이 대한도수치료학회, 대한신경물리치료학회, 대한심폐물리치료학회, 대한물리요법(전기광선)학회, 대한노인물리치료학회, 대한소아물리치료학회, 대한스포츠물리치료학회, 대한여성물

리치료학회, 대한한방물리치료학회 총 9개로 나누었고, 그 중에 대한도수치료학회 중에 본 학회는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 분과학회로 등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관절도수치료연구회, 대한척추교정물리치료 분과학회, 칼텐보른 예비엔스분과학회, 대한관절운동도수치료 분과학회, 한국기능도수치료연구회, 근신경조절물리치료 분과학회, 신경정형물리치료연구회, 대한마사지연구회로 총 9개가 등록되었으며, 스포츠물리치료학회는 대한스포츠물리치료학회명으로 분리 확대되어 스포츠물리치료 분과학회, 테이핑 대체물리치료 분과학회, 운동처방 분과학회, 인체발란스물리치료 연구회, 인체역학 대체물리치료 분과학회, 수중물리치료학회등으로 총 6개가 등록되었고, 동서울물리치료학회도 대한한방물리치료학회명으로 분리 확대되어 대한수기물리치료 연구회, 동서울물리치료분과학회 등으로 총 10개가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정형도수물리치료에 관련된 학회는 총 25개로 발전되었다(<http://www.kpta.co.kr>).

뿐만아니라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와 연결하여 실시되고 있는 전문물리치료사과정의 기초단계과정을 전문간호사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국외에 대한민국 정형도수물리치료의 소개 및 연수과정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의 발전 전망과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간호사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을 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해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과정을 이수하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보건간호과정, 마취간호과정, 정신간호과정 및 가정간호과정)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개정 90.1.9, 96.12.3, 2000.10.21)(보건복지부, 2001), 전문물리치료사는 아직도 국가에서 정식으로 자격기준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와 연결하여 전문물리치료사과정으로 2012년 3월에 삼육대학교 대학원 과정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전문물리치료사제도는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뿐만아니라 대학(원), 복지전문분야, 환자 및 가족(수요자)등 많은 분야에서 요구함에 앞으로 협회와 보건복지부, 각 학회와 대학교가 연관하여 각 전문물리치료분야에서 관련법령과 운영지침, 지불보상체계, 관리지침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물리치료학분야의 발전 확대되어 교과과정 및 이수과정의 시간 수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이 제도가 규정되면 전문물리치료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영역 개척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학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물리치료사 제도의 초석이 될 것이고 학회지의 연구논문 유형을 분석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1991년 1월에 Russell M. woodman 교수가 저렴한 경비로 한국에 방문하여 최초로 연수를 실시하였던 것처럼 본 학회도 2011년에 국외 인도네시아(김명준 회장 등)에서 정형도수물리치료를 소개강좌를 실시하게 되었고 매년 1회 이상의 정형도수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다른 나라로 국외연수를 확대 실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는 1992년 이후로 내부적으로도 발전하였고, 물리치료사들의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기초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쳤고 더 나아가서는 국외적으로도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의 지식과 기술을 국외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는 더욱 발전하여 다양한 도수치료로 확대될 때 전문화된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의 다양한 연구논문은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의 발자취인 1995년 11월(제1권 1호)부터 1999년 11월(제5권 1호)까지 년1회로 발행한 5권과 2000년 6월(제6권 1호)부터 년 2회로 발행하여 현재 2011년 12월(제17권 2호)까지 24권으로 총 29권으로 관련연구들을 수집 정리하여 관련연구의 제 변수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논문유형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양한 정형도수물리치료의 기법발전과 변화된 물리치료 교육행정에 연계된 전문화된 정형도수물리치료지의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보완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연구주제변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질환(뼈관절, 연부근육조직, 신경, 기타) 관련연구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2. 도수치료기법 및 원리, 검사 및 평가도구개발 관련연구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3. 교육효과 및 강의평가분석, 학습모형개발 관련연구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4. 역사 및 정책연구, 적정의료보험수가 관련연구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5. 대체정형물리치료 관련연구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6. 기타(일상생활동작, 보건소, 동물물리치료, 통증관리 등)관련연구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에서 발행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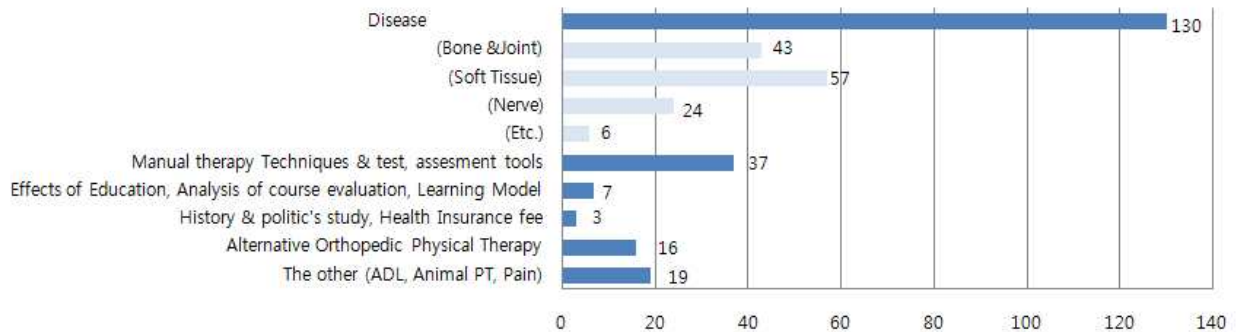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Articles of title on the Journal of Korea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212 Articles)

회지 총 29권 중에 삽입된 총 212편 연구논문들의 주요변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후향적 서술적 조사연구 (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이다. 연구대상은 1995년 11월(제1권, 1호)부터 1999년 11월(제5권, 1호)까지 1회로 발행한 5권과 2000년 6월(제6권, 1호), 2000년 12월(제6권, 2호)부터 2회로 발행하여 현재 2011년 12월(제17권, 2호)까지 24권으로 총 29권 중에 212편 연구논문이다. 자료분석방법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제목에 나타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공통된 변수로 파악된 것을 우선으로 하여 1차 연구주제로 구분한 후 연구내용의 고찰을 통해 최종 공통연구제로 구분하였다. 즉, 연구제목에 나타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먼저 질환명칭과 도수치료기법으로 나뉜 경우에는 먼저 도수치료기법의 변수로 나뉘었고, 다음에 질환명칭위주로 뼈관절, 연부근육조직, 신경, 기타로 나뉘어 파악 분석하였다. 또한 요통인 경우는 뼈관절질환변수에, 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인 경우는 신경질환변수에, 그 외 통증은 기타변수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212편 연구논문제목을 분석한 결과 주요변수는 1) 질환변수, 2) 도수치료기법 및 원리, 검사 및 평가도구개발변수, 3) 교육효과 및 강의평가분석, 학습모형개발변수, 4) 역사 및 정책연구, 적정의료보험수가 변수, 5) 대체정형물리치료변수, 6) 기타변수(통증관리, 일상생활동작, 보건소, 동물물리치료 등)로 총 6개 변수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 III. 본 문

#### 1.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에 발간된 연구주제유형별 및 연도별의 논문편수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 학회지에서 1995년 1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발행된 총 29권에 대해서 최종 선정된 6가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질환변수는 130편이고

이 중에 뼈관절질환 연구는 43편, 연부근육조직질환 연구는 57편, 신경질환 연구는 24편, 기타 질환 연구는 6편이다. 도수치료기법 및 원리, 검사 및 평가도구개발변수는 37편, 교육효과 및 강의평가분석, 학습모형개발변수는 7편, 역사 및 정책연구, 적정의료보험수가변수는 3편, 대체정형물리치료변수는 16편, 통증관리, 일상생활동작, 보건소, 동물물리치료 등으로 기타 변수는 19편이며, 총 212편으로 나타났고(Fig 1), 연도별로 논문편수를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00년도는 39편이고 2001년에서 2006년은 79편이고 2007년에서 2011년은 94편으로 점차 논문편수는 많아졌다(Table 1).

#### 2. 연구주제별로 분석한 세부연구현황

##### 1) 질환(뼈관절, 연부근육조직, 신경, 기타 등) 관련연구

질환변수는 총 130편이고 이중에 뼈관절질환을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00년인 경우 5편, 2001년에서 2006년인 경우 17편, 2007년에서 2011년인 경우 21편으로 합계 43편이고, 연부근육조직질환을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00년인 경우 13편, 2001년에서 2006년인 경우 19편, 2007년에서 2011년인 경우 25편으로 합계 57편이고, 신경질환을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00년인 경우 4편, 2001년에서 2006년인 경우 11편, 2007년에서 2011년인 경우 9편으로 합계 24편이고 기타질환을 살펴보면 내과, 스포츠에 관련된 질환으로 1995년 2000년인 경우 1편, 2001년에서 2006년인 경우 3편, 2007년에서 2011년인 경우 2편으로 합계 6편이다.

##### (1) 뼈관절질환 관련연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주관절의 정형물리치료(박지환, 1995), 관절가동운동이 관절감수기에 미치는 영향(김선엽, 1996), 견관절장애와 관련가동운동술(김선엽, 1996), 의도적인 견갑골 외전이 Sit and Reach Test에 미치는 영향(김선엽 등, 2000), 내반슬, 외반슬의 부정정렬이 하지에 미치는 영향(문성기, 2000)

으로 총 5편이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경추부 견인이 통증환자의 증세 및 통증에 미치는 영향(김성호와 김명준, 2001), 경견완장애의 피로자각증상과 관련요인(강점덕, 2002), 김호봉(2003), 요추후만증을 가진 여자노인환자의 정적 척추부하검사와 허리 신전근력과의 관계(김성호와 김명준, 2003), 박흥기 등(2003),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치료기법(박성일, 2003), The Evidence for Exercise Therapy in Cervical Dysfunction(김영민, 2004), 최현임 등(2004), 공원태와 한종만(2005), 이상용 등(2005), Management for Cervical Instability(김영민과 김호봉, 2005), 외측상과염에 관한 고찰(이문환과 신형수, 2005), 무릎관절 각도가 발목근육의 근전도 활동에 미치는 영향(유경석과 김택연, 2006), 이상용과 박성진(2006), 이상용(2006), 최병옥(2006)으로 총 17편이었다. 2007년부터 2001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내반슬 골관절염환자에 대한 밀착형 외측

쇄기 스트랩 발받침이 한국형 WOMAC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상용과 공원태, 2007),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에서 연속초음파와 맥동초음파 적용이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에 미치는 효과(문현주 등, 2007), 김희라(2007), 체외충격파 치료가 동결견 환자의 통증과 견관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조남정과 박지환, 2007), 김태호와 김병근(2008), 김근조 등(2008), 이규리 등(2008), 김다혜 등(2008), 연령별자세변화에 따른 하지 체중지지에 대한 특성(권혜정과 황성수, 2009), 박영석 등(2009), 원상희 등(2009), 박현주 등(2009), 김호봉(2009), 주상골 하강이 하지배열의 임상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김준우 등, 2010) 김영민과 이효정(2010) 심현보 등(2010), 양경혜와 이현옥(2010), 경부의 외측굴곡 자세습관과 위치감각과의 관계(김영민, 2011), 장현정 등(2011), 최윤호(2011)으로 총 21편이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은 총 43편이다(Table 2).

**Table 2.** The study of Bone Disease Related Manual Therapy

연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1995-2000	김선엽, 지창연, 김광수	건강한 20대 남녀 각 30명	의도적인 견갑골 외전이 Sit and Reach검사결과와 고관절 굴곡각도 그리고 척추의 움직임(spine motion test)을 분석한 결과 견갑골 외전 전·후에 SRT검사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고관절 굴곡각도와 척추의 움직임의 전·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문성기	내·외반슬을 동반한 남녀 각 20명	내외반슬 경대퇴각을 측정한 결과 내반슬군 168±1.42, 외반슬군 193±2.21의 각각의 군에서 경대퇴정상각 183도보다 높거나 낮았다. 고관절외전에는 정상관절가동범위보다 내반슬군에서 높았음.
2001-2006	강점덕	대구시 소재한 우체국 사무원 39명	연령이 감소할수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직업이 불만족인 경우와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가 피로자각증상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음.
	김성호, 김명준	요추후만증을 진단받은 여자 노인환자 37명	정적척추부하검사시 기립자세에서 전반적인 척추기울기는 3.54(11.23도 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정적척추부하검사시 흉부만곡의 변화는 첫 번째 검사시 23.02(14.63도 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2007-2011 (현재)	권혜정, 황성수	건강한 직장인과 S노인정의 어르신 남 44명, 여 49명	연령별 자세별 하지체중지지율을 살펴보면 연령별 좌측과 우측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자세는 한쪽 하지를 의자에 두고 반대쪽 하지로 서기는 20대와 60대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조남정, 박지환	동결견을 진단받은 26명 (실험군 14명, 대조군 12명)	보존적물리치료군이 시각적 사상척도와 견관절기능평가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체외충격파 치료군이 시각적 사상척도와 견관절 기능평가에 있어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였음.

(2) 연부근육조직질환 관련연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Piriformis Syndrome의 정형물리치료(박지환, 1995), 요통환자에 있어 요부굴곡운동과 요부신전운동의 치료효과 비교연구(권혁수와 박지환, 1996), 박지환(1996), 박지환과 김봉수(1997), 요통의 요골반부 안정화 접근법(김선엽, 1998), 박지환과 심충섭(1998), 임신부의 요통발생상태(김선엽과 김광수, 1998), 골반저근육의 기능부전과 운동치료(권혜정과 황성수, 1999), 김선엽(1999), 윤홍일과 배수찬(1999), 이상근증후군에 대한 수기요법치료의 효과연구(김대훈 등, 2000), 성수원(2000), 박노철과 김용권(2000)으로 총 13편이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김선엽 등(2001), 정병욱(2001), 박지환(2002), 여자대학축구선수와 일반여자대학생의 슬관절 신전근 및 굴곡근의 등속성 운동 비교연구(김순영과 박종향, 2002), 채수경과 김호봉(2003), 고관절 외전근의 원심성 운동이 보행 시 균형에 미치는 효과(최원호와 김명중, 2003), 장준혁 등(2003), 강경화 등(2004), 권혁수(2004), 조현우 등(2004), 만성요통환자의 복부심부근과 표재근을 중심으로 한 운동효과 비교(김진산 등, 2005), 남건우와 김종순(2005), 김상은 등(2005), 박수경 등(2005), 남건우 등(2005), 정상성인에 있어 배부근 스트레칭 운동과 복부근력강화 운동이 척추유연성에 미치

는 영향(공원태, 2006), 양정애 등(2006), 김선엽과 이해정(2006), 이준용과 윤홍일(2006)로 총 19편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트레드밀 보행 시 경사도와 속도에 따른 체간근육과 대퇴사두근의 근활성성 분석(김병곤 등, 2007), 공원태와 이상용(2007), 시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이 요부 운동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심현보 등, 2007), 남건우와 박대성(2007), 정연우 등(2007), 김상수와 공원태(2008), 김정선과 박지환(2008), 김태연 등(2008), 김병곤과 김태호(2008), 유방절제술 후 발생하는 림프부종환자에 대한 림프마사지의 효과(박종향과 신영일, 2009), 요부 근력운동이 복부비만자의 요통지수, 요부유연성, 복부비만도에 미치는 영향(이성은 등, 2009), 공원태 등(2009), 김병곤과 손정희(2009), 등척성 견관절 수평 신전운동의 강도에 따른 다열근의 활성도 비교(방윤경 등, 2010), 김정선과 박지환(2010), 김상수와 김선엽(2010), 박현식(2010), 김은영 등(2010), 정영준(2010), 최성환 등(2010), 박영석 등(2011), 김정선과 박지환(2011), 김수현등(2011), 3D NEWTON운동과 짐볼 운동이 요부 근력 및 근지구력에 미치는 영향(서현규 등, 2011), 김한일(2011)로 총 25편이다. 1995년부터 2011년(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총 57편이며, 연부근육조직 관련된 연구주제는 요통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가장 많았다(Table 3).

**Table 3.** The Study of Soft Tissue Disease Related Manual Therapy

연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1995-2000	권혁수, 박지환	요통환자 남자 43명, 여자 50명	치료 1주일 후 평가에서 요통환자의 직장복귀율과 기능적 개선율을 요부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음.
	김선엽, 김광수	5개산부인과의원에 임신부 284명	임산부들이 요통을 경험하고 있으나, 적당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
2001-2006	김순영, 박종향	건강한 여자 대학축구선수 15명, 일반여자대학생 15명	여자대학축구선수가 일반여자대학생에 비해 최대우력치, 근수축 속도등은 높게 나타났지만 지구력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음.
	최원호, 김명중	편마비환자 30명	마비측 고관절외전근의 원심성운동이 균형범위 내에서 체중지지능력의 향상과 편마비환자의 마비측 하지도 연관이 있음.
2007-2011 (현재)	김병곤, 공원태, 정연우	D대학의 하지구조적손상이 없는 각 남·여 8명.	경사각이 0%, 5%, 10%일때 속도변화에 따른 대퇴사두근과 체간근육의 근활성도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심현보, 윤홍일, 윤미나	H대학 신체건강한 남 20명, 여 19명	자세와 움직임에 대한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유수용성 감각훈련이나 운동을 시행할 때는 과도한 시각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각정보의 차단과 허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함.
	이성은, 김중우, 서현규	요통남자환자 중 과체중인 17명	요부안정화 운동과 단순한 요부운동 모두에서 요통의 감소나 복부비만개선이 높았지만, 복부지방중 내장지방감소에 있어서는 요부안정화 운동이 단순요부운동에 비해 좋은 효과가 있었음.
	서현규, 김중우, 황병준	요통경험이 없는 D대학 16명학생	3D뉴턴과 짐볼을 이용한 안정화운동 모두 근력과 지구력에 효과적이었으나, 두 운동간에 효과의 차이는 없었음.

(3) 신경질환 관련연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한 편측견인의 치료효과(박지환과 권혁수, 1995), 선천성 유아사경의 물리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김호봉 등, 1996), 흉곽출구증후근의 물리치료효과(권혁수와 박지환, 1997), HIVD환자의 선자세 요부견인이 Spine angle에 미치는 영향(권혜정 등, 1999)으로 총 4편이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평형훈련이 편마비환자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배수찬 등, 2001), 강점덕과 박홍덕(2001), 파킨슨질환에 대한 문헌적 고찰(김진웅 등, 2002), 흉곽출구증후근(강점덕과 박윤기, 2003), 체중현수 트레드밀 훈련이 뇌졸중환자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김성학 등, 2004), 황성수와 김명준(2004), 전경골근 등척성수축에 의한 경직성 뇌졸중 환자의 비복근 알파운동신경원 흥분변화(김중순 등, 2005), 척골지단신경의 전기생리학적 연구(김중순 등, 2005), 박지환(2005), 정중운동신경과 척골운동신경의 전기생리학적 연구(김중순 등, 2005), 김성학 등(2006)으로 총 11편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이용한 중풍구두가 편마비환자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김정선과 박지환, 2007), 일상생활동작 집단학습

운동프로그램이 편마비환자의 독립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박현식 등, 2008), 김명준(2009), 단일 요추간판 절제술 환자의 조기운동프로그램이 통증, 장애, 균형에 미치는 영향(전재국과 김명준, 2009), 강점덕(2010), 임현철 등(2011), 박종항 등(2011), 황병준 등(2011), 김현주와 이재혁(2011)으로 총 9편이다. 1995년부터 2011년(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은 24편이고, 신경질환 관련된 연구주제는 편마비환자와 요추추간판수핵 탈출증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대부분 제시되었다(Table 4).

(4) 기타질환 관련연구

1995년부터 2011년(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태권도 경기중 스포츠 손상에 대한 분석(허진강과 김광수, 1999), 인터넷 중독자의 신체적이상 증상에 대한 진단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박지환, 2001), VDT작업시간의 관련성분석(강점덕, 2003), VDT증후군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강점덕, 2004), 전환번호안내원의 단순 반복작업에 의한 산지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장애영향 요인(김영민, 2007), 혈우병환자의 관절염증과 물리치료(이우형, 2010)로 총 6편이고, 다양한 연구주제에 관련된 논문이 제시되었다.

**Table 4.** The Study of Nerve Disease Related Manual Therapy

연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1995-2000	박지환, 권혁수	합병증없는 요추추간판 수핵탈출증환자 대조군 5명, 실험군 5명	치료종료 후 하지직 거상조사시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평균 11도 정도 증가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권혜정, 김명준, 최영덕	수술경험이 없는 요추추간판 탈출증 남자 16명, 여자 6명	요추추각도는 버터트랙 치료 후 정상각도를 유지위한 자세교정,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였음.
2001-2006	배수찬, 김근조, 윤희일	편마비환자 대조군 9명, 실험군 9명	균형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평탄한 지면보다는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균형훈련이 반드시 요구되며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과 처방이 필요함.
	김성학 등	65세 뇌졸중환자, 대조군 7명, 실험군 7명	실험군과 대조군의 보행속도, 분속수, 보장(step length)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체중현수 트레드밀 훈련이 유용하다고 나타났음.
2007-2011 (현재)	김중순, 이현옥, 안소윤	편마비환자 30명	전경골근의 수의적인 등척성 수축을 유도하는 상호억제기법이 뇌졸중으로 인한 경직성 편마비환자의 비복근 운동신경원의 흥분을 억제하여 경직을 개선할 수 있음.
	박현식, 김택연, 박종항	편마비환자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	일상생활동작 집단학습운동이 편마비환자의 기능향상과 일상생활에 맞는 사회적응력이 향상된다고 함.
	전재국, 김명준	요추추간판 후궁절제술을 받은 요추추간판탈출환자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	조기운동프로그램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허리통증, 다리통증, 장내지수, 체중분해지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요추간판후궁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빠른 회복에 효과가 있음.

**2) 도수치료기법원리, 검사 및 원리, 평가도구개발 관련연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경추에 대한 정형물리치료적 평가 및 치료방법(정진우, 1995), 골반의 기능평가 및 치료에 관한 고찰(구희서, 1995), 도수교정의 검사원리(박지환, 1995), 수핵탈출증에 대한 Cyriax 요추 견인법(박지환, 1995), Cyriax의 Orthopaedic Medicine에 관한 연구(구희서, 1995), Kaltenborn의 관절가동기법(김호봉과 배성수, 1998)으로 6편이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긴장형 두통환자에서의 근막이완술이 뇌혈류 속도에 미치는 영향(서현규 등, 2002), 김종우 등(2003), Dysfunction syndrome을 가진 만성요통환자의 요천골 도수교정에 의한 자세변화(전차선 등, 2003), 전재국(2003), 박지환(2004), 서현규 등(2004), 도수치료기법들 간의 평가와 치료개념에 대한 비교(김호봉 등, 2005), 서현규 등(2005), 김수형(2005), 안호정 등(2006)으로 총 10편이

다. 2007년부터 2011년(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멀리건 기법이 긴장성 두통에 미치는 영향(서현규 등, 2007), 이상호와 박지환(2007), 강점덕(2007), 관절가동술과 맥켄지 운동이 경부가동범위와 압통에 미치는 영향(서현규 등, 2008), 박현식 등(2008), 최성환 등(2008), 발목관절가동범위측정을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연구(홍완성과 김기원, 2009), 김용정 등(2009), 김한일 등(2009), 김종우 등(2009), 박윤기 등(2009), 강점덕(2009), 천장관절기능부전에 대한 검사방법의 진단적 가치(윤홍일과 심현보, 2010), 정연우와 이우형(2010), 박윤기(2010), 적외선치료와 근막이완술에 관한 연구주제로 서현규와 공원태(2010), 멀리건 테크닉과 경피신경치료기 적용에 관한 연구주제로 서현규와 공원태(2010), 전재국과 김병준(2010), 강석명 등(2010), 김동태(2010), 파악력평가도구개발모형에 관한 연구(김은정

**Table 5.** The Study of Techniques & Test, Assessment Tools for Manual Therapy

연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1995-2000	정진우	Cyriax, Mckenzie, Maitland 관련문헌	경추에 대한 Cyriax, Mckenzie, Maitland등에 대한 평가 및 치료 방법을 문헌고찰 소개했음
	박지환	도수교정의 관련 문헌	도수교정의 검사 즉, 경막, 신경근후종인대, 추간원판, 척추관절 척추검사 및 척수교정에 대한 문헌고찰 소개했음
	구희서	Cyriax 관련문헌	Cyriax는 연부조직이 X-ray상에 진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부터 연부조직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면에서 정형학 효과를 향상 시킴
	김호봉, 배성수	Kaltenborn 관련문헌	통증없이 정상관절기능을 회복시키는 Kaltenborn 관절가동기법을 소개했음
2001-2006	서현규, 한종만, 이동호	두통환자 10명	근막이완술이 긴장형 두통환자의 뇌혈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대뇌동맥, 후대뇌동맥 및 추공동맥에서 치료 전·후에 뇌혈류속도 차이를 나타냈음.
	전차선, 유경석, 김택연	기능부전증후군을 가진 5명 만성여성 요통환자	요천골도수교정장에 의한 자세변화에서는 주관적인 통증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근골격의 체형진단기측정에서의 자세분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음.
	김호봉, 김선엽, 김영민	도수치료기법 관련문헌	멘넬(john Mennell), 시리악스(James Cyriax), 정골의학(Osteopathic), 메이트런드(Geoffrey Maitland), 칼텐본(Freddy Kaltenborn), 그림스비(Ola Grimsby), 메켄지(Robin Mckenzie), 멀리건(Brian Mulligan), 근에너지기법(Muscle Energy Technique) 검진법 소개 및 각 도수치료기법들간의 비교고찰 하였음.
2007-2011 (현재)	서현규, 김태호, 공원태	긴장형두통환자 20명	Mulligan방법을 실시하여, VAS척도, BPI척도평가결과, 시술전보다 시술후에 VAS ,BPI(수업, 기분, 여가생활, 대인관계, 수면)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윤홍일, 심현보	천장관절기능부전의 정형도수치료 문헌	천장관절기능부전에 대한 진단 검사로 골표식점에 대한 촉진과 가동성검사 등의 검사가 양성반응으로 나타났음.
	김은정, 박지환	30대~60대 여성 80명	파악력 시각 인자를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음





**Table 7.** The Study of Alternative Orthopedic Physical Therapy

연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1995-2000	최병욱	프라이오 메트릭 운동에 관련된 문헌고찰	Plyometric 운동의 신경생리학적 원리는 고유수용감각기관인 근방추와 골지힘줄기관이고, 이 훈련방법으로 스포츠분야와 환자들의 회복기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음.
2001-2006	김선엽, 권재확	요부 안정화 훈련과 슬링운동치료에 관련된 문헌고찰	흔들리는 줄을 이용하거나 불안정한 지면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감각운동훈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법으로 슬링운동을 소개하였음.
	김선엽, 김호봉	McConnell 테이핑법과 관련된 문헌고찰	견관절부기능장애의 치료 방법중 McConnell 테이핑법의 적용방법과 효과등을 제시하였음.
2007-2011 (현재)	남건우	과체중으로 판정된 16명	필라테스매트 운동법을 실시한 후 허리, 둔부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지만 체질량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김윤환 등	건강한 성인 실험군 10명과 대조군 10명	고관절 외전근에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근력강화운동이 정적균형능력에 일부영향이 나타났음.
	이호재, 현상욱, 서현규	D대학 축구동아리 14명 남학생	테이핑 작용과 신장운동적용 시 근력과 지구력의 운동전·후 차이를 비교 시 두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서병도 등	K대학 15명 남학생	넙다리네갈래근에 키네시오테이핑 전·후에 따라 원게이트검사에서 평균파워, 최대파워, 평균파워/체중, 최대파워/체중에서 테이핑적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음.

통증에 미치는 영향(박지환, 1999)으로 2편이었으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슬링운동치료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능동적 운동과 치료의 총체적 개념(Gittle Kirkesola, 2001), 슬링시스템을 이용한 요부안정화운동(김선엽과 권재확, 2001), 권재확 등(2002), 슬링운동에서 Hanging point의 원리와 임상적 적용(김선엽 등, 2003), 견관절부장애의 치료를 위한 McConnell 테이핑적용법(김선엽과 김호봉, 2005), 이동규와 이상용(2006), 필라테스운동프로그램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남건우, 2006), 김선엽과 김택연(2006)으로 총 8편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만성요통과 하지통증에 대한 테이핑기법-McConnell접근법(김선엽 등, 2008), 탄력밴드를 이용한 고관절 외전근 근력강화운동이 정적균형에 미치는 영향(김윤환 등, 2009), 유웅식, 전차선, 원상희(2009), 테이핑과 신장운동이 슬관절굴곡근과 신전근의 근력 및 근지구력에 미치는 영향(이호재 등, 2009), 김병곤 등(2009), 넙다리네갈래근의 키네시오테이핑적용이 근파워 및 근피로에 미치는 영향(서병도 등, 2011)으로 총 6편이다. 1995년부터 2011년(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은 총 16편으로 대체정형물리치료 관련 연구가 1997년에서 2000년까지는 2편뿐이었지만, 2001년에서 2011년(현재)까지 14편으로 발전됨은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연구 및 기법이 점차 확대되어가

고 있다. 앞으로는 정형도수물리치료관련 연구에 관련된 연구주제와 함께 대체정형물리치료연구가 발전하여 환자에게 다양한 기법으로 치료를 실시하여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able 7).

**6) 기타(일상생활동작, 보건소, 동물물리치료, 통증관리) 관련연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VAS를 이용한 동통평가표에 의한 동통관리의 효율성에 관한연구(이복희 등, 1995), 적외선 체열촬영에 관한 고찰(김호봉, 1995), 도시지역노인의 ADL과 건강관리에 대한 임상적연구(허영구, 1998)로 총 3편이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김근조 등(2001), 정형물리치료에 대한 전국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조사(박흥기 등, 2002), 노인들의 동통과 주관적 건강지수정도의 조사(윤홍일, 2002), 통증과 불안의 관계분석(강점덕, 2002), 동물물리치료(김진웅과 배수찬, 2002), 김지혁 등(2004), 김선엽(2004),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과 학생의 성별에 따른 HIV/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안소윤과 김종순, 2005), 전차선과 김택연(2006)으로 총 9편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PNF의 수축-이완운동이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공원태 등, 2007), 공원태(2007), 강점덕과 김현주(2007), 류마티스관절염에

관련된 연구로 강점덕(2008), 퇴행성 슬관절염에 관련된 연구로 강점덕(2008), 강점덕(2009), 감각통합훈련이 20대 대학생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한종만과 이우형, 2010)로 총 7편이다. 1995년부터 2011(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모두 19편으로 대부분 통증관리,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논문이고,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조사, HIV/AIDS질환에 대한 지식과 태도, 뿐만 아니라 동물물리치료에 관련된 연구주제에 논문도 게재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앞으로 수의사와 함께 동물물리치료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은 필요하다고 하겠다(Table 8).

**Table 8.** The Study of The Others (ADL, Animal PT, Pain)

연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1995-2000	허영구	물리치료실 기록지를 중심으로 노인 200명 환자 조사	일상생활동작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다'가 53.5%로 가장 많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적 운동은 남자가 56.0%, 여자가 34.7% 나타났음
	박환기, 주무열, 신상철	설문지 123부회수	전국 보건소 물리치료사에게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결과 인식도는 81%, 보건소에 '필요하다'는 71%로 매우 높았음.
2001-2006	강점덕	질환이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83명	통증과 불안에 대해서 VAS통증평가표와 자가평정불안척도로 분석결과, 60세 이상이 통증(5.2점) 불안(35.0)으로 가장 높았고, 작업에서는 농업에서 통증(5.1점), 불안(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통증부위에서는 관절통에서 5.1로 가장 높았고 불안점수는 경부통에서 38.1점이었음.
	김진웅, 배수찬	동물물리치료에 관련된 문헌교찰	동물에 관련된 물리치료 종류 및 대체의학등을 소개하였고, 앞으로 동물물리치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물리치료방법도 수의과대학과 교류하여 발전을 하여야 함을 강조함
2007-2011 (현재)	한종만, 이우형	C대학 남자 10명 여자 9명 대학생	여러 종류의 감각통합훈련을 실시한 후 균형감각을 조사한 결과, 눈감고 양발서기와 눈감고 한발서기의 균형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음.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에서 발행된 학회지중 1995년 11월(제1권 1호)에서 1999년 11월(제5권 1호)까지 년 1회로 발행된 5권과 2000년 6월(제6권 1호)에서 2011년 12월(제17권 2호)까지 년 2회로 발행한 24권으로 총 29권 중에 212편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관련연구의 제 변수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논문유형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형도수물리치료 연구에서 보완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연구주제변수를 제안함으로써 정형도수물리치료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연구방법은 연구제목의 주요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후향적 서술조사연구(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로 분석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95년 11월(제1권 1호)에서 2011년 12월(제17권 2호)까지 발행된 총 29권에 대해서 최종 선정된 6가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질환변수는 총 130편 도수치료 기법 및 원리, 검사 및 원리, 평가도구개발변수는 37편, 교육효과 및 강의평가분석, 학습모형개발변수는 7편, 역사 및 정책연구, 적정의료보험수가 변수는 3편, 대체정형물리치료변수는 16편, 기타변수(통증관리, 일상생활동작, 보건소, 동물물리치료 등)는 19편이며 총 212편으로 나타났다. 질환변수에 대한 연구가 130편(61.3%)으로 가장 많았고 질환 외에 관련된 연구논문은 적은 편임으로 앞으로 학회에서 해마다 권(호)에 따라 '지정된 논문 주제 변수'를 제시하여 부족한 연구주제변수에 연계된 논문이 제시하기를 바란다.

2. 질환관련변수를 살펴보면 뼈관절질환연구는 43편, 연부근육조직 질환연구는 57편, 신경질환연구는 24편, 기타질환연구는 6편이다. 뼈관절질환에 대한 연구주제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연부근육조직질환에 관련된 연구주제는 요통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신경질환에 대한 연구주제는 편마비환자와 요

추추간판수핵탈출증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대부분 제시되었다. 기타질환연구주제는 태권도스포츠손상, 인터넷 중독자, 혈우병환자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이 제시되어 6가지 변수이며 총 130편으로 다양한 질환관련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에 맞게 뼈관절 및 연부근육조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제시되어 있으나 신경 및 다양한 다른 질환에 대한 연구도 제시되기를 바란다.

3. 도수치료기법원리, 검사 및 원리, 평가도구개발관련변수를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00년까지는 5편으로 기본적인 정형물리치료의 기법에 대한 소개뿐이었으나, 2001년에서 2011년(현재)에는 다양한 정형물리치료의 기법 및 원리, 검사 및 평가도구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실제로 적용된 실험연구논문이 21편으로 점차 발전되었고, 총 37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는데 앞으로 학회에서 다양한 치료기법 및 평가도구개발에 대한 세미나 및 연수를 실시하기를 바란다.

4. 정형물리치료의 교육효과 및 강의평가분석, 학습모형개발관련변수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11년(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주제는 총 7편으로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개발, 강의평가 및 학습모형개발의 연구논문이 발전됨으로써 정형물리치료학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수과정(기본 및 심화과정, 대체과정 등)으로 임상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 대전대학교 대학원, 삼육대학교대학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문정형물리치료사과정이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되어 다른 학교에도 확대, 발전되기를 바란다.

5. 역사 및 정책연구, 적정의료보험수가 관련변수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11년(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주제를 총 3편으로 매우 미흡한 편이다. 1995년에서 창간하여 2011년(현재)까지 17년동안 학회와 협회의 발전으로 국내의 이수과정(기본 및 심화과정, 대체과정)뿐만 아니라, 국외(인도네시아)까지 정형물리치료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임으로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의 정책과 적정의료보험수가에 대해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6. 대체정형물리치료 관련변수를 살펴보면 1997년에서 2000년까지는 2편뿐이었지만, 2001년에서 2011년(현재)까지는 14편으로 총 16편이다. 이는 점차 대체정형물리치료연구도 발전되었으므로, 정형물리치료에 대한 연구 및 기법을 토대로 앞으로 정형물리치료관련 연구와 대체물리치료 관련 연구가 함께 병합된 다양한 기법이 제시되는 논문이 연구되기를 바란다.

7. 기타(통증관리, 일상생활동작, 보건소, 동물물리치료등)관련변수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11년(현재)까

지 발표된 연구주제는 총 19편으로 대부분 통증관리,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논문이고,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조사, HIV/AIDS질환에 대한 지식과 태도, 동물물리치료에 관련된 논문이 각 1편이었다. 그중에서 동물물리치료는 앞으로 수의사와 함께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1995년 11월(제1권 1호)에서 발행하여 현재 총 29권, 212편 연구논문을 6개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질환에 대한 연구논문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질환은 뼈, 관절 및 연부근육조직 질환에 대한 연구논문은 많았지만 신경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연구논문은 적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관련된 5개 변수에 대한 연구도 적음으로 앞으로 학회에서 해마다 권(호)에 따라 '지정된 논문주제 변수'를 제시하여 부족한 연구주제변수에 연계된 논문이 제시하기를 바라고, 다양한 세미나 및 연수를 제시하여 보다 더 발전된 평가도구개발 및 학습모형개발 등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또한 전문정형물리치료사 과정으로 대한민국 전문물리치료사제도의 기초자료로 제시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확대 전파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호봉, 김선엽, 김영민. 도수치료기법을 간의 평가와 치료개념에 대한 비교.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5;11(1):49-64.
-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1995; 1(1):1-111.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1996; 2(1):9-56.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1997; 3(1):7-42.
-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1998; 4(1):7-82.
-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1999; 5(1):5-80.
-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2000; 6(1):5-49.
-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2000; 6(2):5-53.

-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2001; 7(1):5-106.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1; 7(2):5-64.
-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2002; 8(1):5-48.
-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2002; 8(2):5-87.
-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2003; 9(1):5-52.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3; 9(2):5-95.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4; 10(1):5-145.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4; 10(2):5-82.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5; 11(1):1-91.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5; 11(2):1-118.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6; 12(1):1-67.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6; 12(2):1-65.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7; 13(1):1-72.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7; 13(2):1-101.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8; 14(1):1-76.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8; 14(2):1-77.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9; 15(1):1-85.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9; 15(2):1-97.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10; 16(1):1-76.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10; 16(2):1-97.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11; 17(1):1-55.
-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11; 17(2):1-69.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업무편람. 2001 : 167-170.
- 박지환, 한국정형물리치료의 역사.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지. 2000;6(2):39-53.